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이야기

황정숙

미국 팔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교감

1. 들어가는 말

한국어교육에 대해 나는 늘 빛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 오래전 조그마한 시골 마을, 서울에서 내려온 낯선 이들로부터 거저 배워 익힌 ‘한글’ 덕분인지도 모른다. 노란 개나리 그늘 밑에 모인 동네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거친 흙과 돌이 섞인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짚은 선을 그어 가며 한글을 가르치던 소녀는 소원대로 커서 한국어 교사가 되었다. 그것도 한국, 인도네시아, 몽골, 미국,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는 다양한 축복의 기회를 가진 아주 운 좋은 교사로 말이다.

2. 고향 마을에서의 빛

내 고향 파주 동패리 심학산 밑에는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 동네 우물을 가운데 두고 논둑 머리에 뎅그러니 세워진 단층 건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테는 신기한 빌딩이었고,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유일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었고,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였다. 당시 동네에는 유치원이 없었고 초등학교는 30분을 꼬박 걸어가야 나왔고, 중학교는 마을버스를 한참

타고 나가야 나왔다. 그래서인지 우리 마을에는 서울에서 내려와 아이들한테 한글과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수시로 교회를 방문하셨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언니, 짙은 색 청바지를 입은 오빠, 옆구리에 넓은 성경책을 끼신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운이 좋게도 우리 마을은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문맹이 깨우쳐졌고, 교육의 틀이 조금씩 갖춰졌다. 그리고 어린 시절처럼 철없이 논두렁과 밭두렁을 뛰어다니던 나도 우연히 한 명의 수혜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부모님의 배려로 우리 오 남매는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신촌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낼 때까지도 부모님이 머무시던 고향 마을에 주말마다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성경과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는 봉사를 했다. 파주·일산의 홀트아동복지와 고아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을 씻겨 주고 공부시켰다.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오시면서 매 주말 경의선 기차를 타던 시골 행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끊임없이 한국어 수업 자원봉사 기회를 찾아 일했다. 특별히 가진 것 없는 내게 ‘한국어’는 그나마 나눠 줄 수 있는 자산이었다.

3.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수업

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 순위 고사를 준비하던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3학년 때, 우연히 인도네시아의 스마랑과 반동에 계신 선교사님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도와줄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해 여름 방학 한 달 동안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면서 한국인 2세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재택 교육(홈스쿨링)을 맡아 했다. 그렇게 시작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첫 경험은 오늘의 나를 세운 초석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었지만 나는 ‘외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새롭게 접근해 보려고 했다. 감사하게도 나는 그 당시 이중언어학회 회장, 국제 한국어교육자협의회 임원 등으로 활약을 하시던 신현숙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은사님 덕분에 변화하는 세계 한국어교육의 흐름을 좀 더 일찍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조사 수업 모형 제시’라는 석사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4. 미 동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

1992년, 국어학 전공 대학원 졸업과 함께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남편을 따라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10년간 뉴저지의 러거스주립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었다. 2008년부터는 2년 동안 러거스주립 대학의 교육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뉴저지 정부로부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미국 정규 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뉴저지의 팰리세이즈파크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9년 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 고등학교 한국어반에는 한류나 케이 팝(K-POP)에 관한 관심으로 한국어반을 찾는 친구들도 있지만, 놀랍게 발전하는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진지한 학생들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어반을 찾는 학생들도 많다. 최근 한국어우수장학생협의회(Korean Honor Society)가 생기면서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어반을 찾고 있고, 에스에이티 코리안(SAT Korean)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많아지면서, ‘이중 언어 인증 제도[STEM Test for Seal Biliteracy(Korean)]’ 합격 증서를

취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몇 년 안에 미국에 에이피 한국어(AP Korean: Advanced Placement Korean)¹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반



한국어반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태권도, 사물놀이, 한국 전통 무용, 난타)

¹ 에이피(AP) 수업은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 인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학습 과정이다. 다른 외국어 과정의 경우 대부분 개설되어 있으나 한국어 과정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국 정부와 많은 미주 한인 단체들이 협력하여 한국어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5. 미 동부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동아리 지도

2010년 뉴저지에서 최초로 한국어반이 생긴 우리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에 나는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시간을 넣었다. 김밥과 호떡 만들기, 봇글씨, 전통 민화, 나전 칠기, 사물놀이 등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렸다. 또한 전통 민속놀이 배우기, 추석 대잔치 행사, 태권도, 케이 팝 소개, 다도 수업, 한국어 시 낭송 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도 실시해 보았다. 뉴욕의 박물관과 한식당으로 현장 학습 체험을 다녀오기도 했고, 김치 담그기와 만두 만들기를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전통 탈을 만들고 봉산 탈춤을 배워 보기도 했고, 전문가를 모셔 남북한 문제와 통일에 대한 토론 시간도 마련하였다.

나는 2012년부터 8년째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 학생 중심의 방과 후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내가 이끄는 흐프 클럽(Hope club)에는 사물놀이 팀, 케이 팝 댄스 팀, 한국 전통 무용 팀, 태권도 팀, 악기 팀, 한국 가요 팀, 가야금 팀 등 다양한 팀들이 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매주 몇 차례 모여 열심히 연습한 후에 학년 말에 한국 문화 자선 모금 음악회(콘서트)를 하면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한껏 뽐낸다. 방과 후 동아리를 통해 한국어반 학생들이 늘어 가는 것도 사실이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다.

6. 미 동부 토요 한국 학교와 공립 도서관에서의 한국어 수업

주말에는 26년째 토요 한국 학교에서 교사와 교감으로 또 다른 한국어 학습자를 만나고 있다. 해외에서 자란 동포 자녀들과 공관 자녀, 그리고 외국인들이 토요일에도 모여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3살 반 꼬마부터 12학년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외국인 한국어 회화반에 등록하는 성인들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미국에만도 1,000개가량의 주말 한국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주중에는 지역 타운의 공립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지도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모이는 ‘한국어 회화반’에도 20여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가득한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 배우는 분,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가 한국인이라 배우는 분, 직장 일과 관련되어 배우는 분 등 학습자의 배움의 동기와 열정도 다양하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다도)를 체험하는 학습자들의 모습

7. 몽골에서의 한국어 수업

10년 전 즈음, 뉴저지 렛거스주립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던 어느 여름이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학술 대회에 참석 중에 놀랍게도 주 강사로 오신 대학 은사님 최기호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은사님께서는 그 당시 한글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의 귀한 인연으로 교수님 대신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여름 한국어 교사 연수 및 특강을 대신 맡아 강의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1주일 동안 매일 7시간씩 현지 한국어 강사나 교사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하고 나머지 2주는 150여 명의 울란바토르 현지 교사들과 함께 초등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라는 여름 학교를 진행했다.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라 기쁨은 갑절이었다. 벌써 10년이 지났건만, 대자연이 펼쳐진 몽골의 초원과 천막집 계르에 누워 올려다본 몽골의 푸른 하늘 속 별들과 몽골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8. 과테말라에서의 한국어 수업

2010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아들과 남편, 그리고 나는 교회의 단기 선교 팀에 합류했다. 과테말라의 산골 오지에 들어가 공부를 가르치고, 화장실도 짓고, 건물도 보수하는 고된 사역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유통불통한 산길을 달려야 했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조각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 다시 30분 정도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나오는 산골 오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쳤다. 다른 팀이 아이들에게 신을 신겨 주고, 축구를 가르치고, 화장실을 지어 주고, 머리를 잘라 주고, 물이 새는 건물의 지붕을 고쳐 주는 동안, 한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지붕도 없는 허름한 곳에서 ‘고기’, ‘기차’, ‘아이’라는 단어가 쓰인 학습용 낱말 카드가 넘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라는 한국말이 퍼졌다. 그렇게 과테말라 깊은 산골에도 한국어는 전해졌다.

9. 아프리카에서의 한국어 수업

지난 2018년 여름에는 아프리카에서 초·중등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자원봉사 한국어 교사들이 가나 땅에 와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고 아프리카에 다녀왔다. 여러 가지 예방 접종 주사도 맞아야 하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고, 독한 말라리아 약도 몇 주간 복용해야 하는 쉽지 않은 캠프였지만, 뜻을 같이한 뉴욕과 뉴저지의 한국어 교사 3명은 2월부터 회의를 하면서 밤을 새워 아프리카에서의 여름 한국어 캠프를 준비했다. 예상 인원 150명에 맞게 한국에서 소고도 준비하고, 한국어 책자도 만들어 인쇄하고, 학습 활동을 위한 각종 재료도 구입했다. 기부해 주신 분들 덕분에 수업 중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텔레비전도 몇 대 가져가고, 색종이, 풀, 가위, 물감, 크레용 등 수업 준비물까지도 모두 미국에서 구입해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 땅끝 가나 땅에 15일을 머물면서 현지 교사 팀의 도움을 받으며 ‘신나는 여름 한국어 캠프’를 진행했다.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학습을 병행했다. 미니 차전놀이, 물 풍선 터뜨리기, 소고춤, 수건 돌리기, 제기차기, 세계 지도 만들기, 민화 그리기, 태권도, 한국 전통 놀이 등을 하면서 학생들의 함성 소리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다. 비록 붉은 흙먼지로 호흡이 힘들었고, 햇빛 알레르기와 땀띠, 모기로 고생을 했던 여름이었지만 한국어로 소통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진행했던 ‘신나는 여름 한국어 캠프’ 모습

10. 미 서부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업

2019년 여름 방학에는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열린 여름 한국어 학교 프로그램에 교사로 참여했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8주 동안 공동 기숙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학점(12학점)을 받을 수 있는 질 높고 전통이 있는 한국어 여름 학기 수업이었다. 직장 생활 중 휴가를 모아 등록한 직장인, 방학 8주를 투자한 대학생, 외교관이나 통역 및 번역사를 준비하는 대학원생, 군인 장교 등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어 교수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공부한다. 기숙사에 들어온 첫날에 엄숙한 ‘언어 서약식’도 한다. 누구와도 영어로 전화나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없고, 영어로 된 책을 읽거나 영상물을 볼 수도 없다. 규칙 위반 시에는 비싼 등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결국 마지막 날에 학생들은 놀라운 한국어 실력을 자랑했다. 또한 다양한 오후 문화 활동과 초대 강의와 동아리 활동 덕분에 학생들은 충분히 한국 문화에 노출되었다. 한국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들과 땀 흘리며 흄뻑 사랑에 빠졌던 잊을 수 없는 여름이었다.

11. 나오는 말

50여 년 전,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삼팔선 근처 심학산 아랫마을에서 누군가의 나눔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한글을 사랑하게 되었던 나는 늘 빛진 자의 마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왔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미국에서는 대학교 한국어 강사와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와 토요 한국 학교 교사로, 방학에는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와 몽골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는 귀한 특권을 얻었다.

지금도 나는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한국어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다. 뛰어난 한국어 교사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좋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교사가 부족한 나라에 들어가 한국어를 가르침으로 마음 속 빛 갚음을 이어 가고 싶다. 잠시였지만 우리의 방문으로 환하게 웃어 주었던 낯선 나라 아이들의 미소가 오늘도 내 심장 박동 수를 높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도 그 하늘 밑에서 한국어를 사랑하는 한국어 교사였듯이, 오늘도 이 땅 위에서 한국어를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어 교사이고, 내일도 어느 거친 평지 위에서 한국어를 목숨 걸고 나누는 한국어 교사이고 싶다. 아무래도 나는 큰 빛을 진 자임이 분명하다. 소리 없이 가을 새벽이 밝아 온다.